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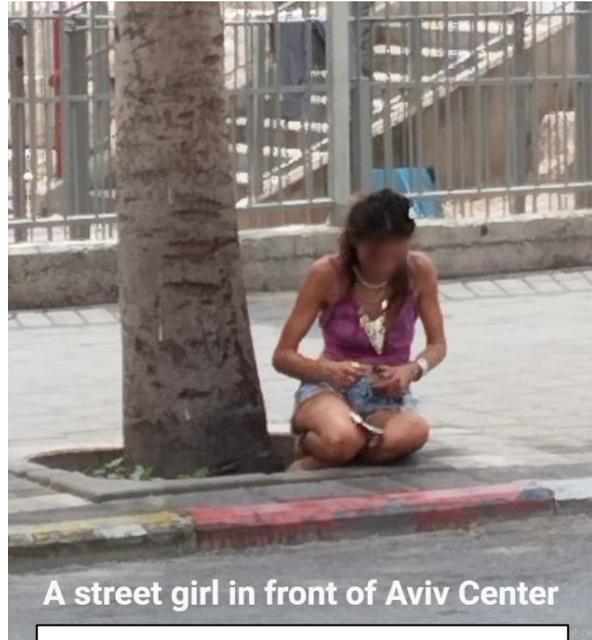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2024년 5월 사역 소식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살롬!

저희 아비브 센터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을 보내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방문객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봉사자팀 리더인 이갈이 전해주는 사연을 들어보시죠.

지난 달, 저는 거리에서 음식을 나눠주다가 나오미*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봤지만, 이야기를 나눈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게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안아주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덕분에 저는 예수님 신앙에 대해 나누고, 수년 전에 범죄와 마약의 삶에서 저를 구원해주신 이야기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A street girl in front of Aviv Center

참고용 사진: 아비브 센터 앞에 있는 노숙 여인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저도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어떤 일을 겪으셨든,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며 도와주길 원하신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4아이를 두고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42세라고요. 남편이 폭력을 많이 써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다가, 어느 날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잘 해줬어요.” 이혼 후, 나오미는 마약 중독된 남자를 만났고 자신도 마약을 시도해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아서, 나오미*는 자신이 중독됐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계속했으니깐요. 어느 날, 남자 친구가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자신에게 심각한 마약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곧 그녀는 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다음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희 재활 센터에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리의 삶과 마약에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 원하기만 하면 그녀의 삶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화의 말미에, 저는 기도해줘도 되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그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돕기를 원하신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냐고 묻자 나오미*는 “네, 어쨌든 전

유대인이니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저도 유대인이지만, 우리 둘의 차이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라고 했죠. 우리는 함께 기도했고, 그녀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계속 이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자유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시도록요!

저희 브엘세바 재활 센터는 현재 8명의 재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최근 두 명이 프로그램을 마쳐서 독립 생활을 하게 되었고, 2명이 추가로 곧 그런 순간을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전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분들에 대해 언제나 저희는 문을 열어놓고 있고, 지난 달에는 알콜과 마약 중독 모두로 괴로운 상황의 두 사람을 맞았는데, 안타깝게도 이틀 만에 금단현상을 못 이기고 떠났습니다.



샤발 예배

게다가, 저희는 최대 8명의 외부 방문객을 맞고 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할지 아직 결정을 못내린 브엘세바의 중독자들이겠죠. 저희 재활 센터에 와서 먹고 섬을 누리며, 성경 공부 등 활동을 함께 합니다. 그들은 또한 저희 공동체의 사발 예배에도 함께 하는데, 그러면 저희 지체들이 따뜻하게 맞아주며 예배 후에는 식사도 나눕니다. 이러한 태도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중독을 벗어나 자유로 향하는 걸음을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안 지가 꽤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유발*은 수년 동안 중독된 상태라, 감옥에도 갔다 왔고 몇 년 전에 브엘세바의 한 공원에서 저희가 전도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만났었습니다.

그는 40대 후반인데,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고 최근에는 아주 가까운 관계였던 아버지(그도 마약 중독)를 떠나보냈습니다. 현재 그는 상실감과 고독감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또 다른 방문자 레미*는 오랜 시간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고통 받았고 12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버려진 건물에서 살며, 다리에 끔찍한 부상을 입어 끊아터졌으며, 간단한 일을 가끔씩 구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저희 재활 센터와 교회에 꾸준히 와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유발*, 레미* 등 방문객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여성 쉼터에는 야스민*이라는 젊은 여성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친구와 이스라엘 북부에서 아파트 월세로 살았는데,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헤즈볼라가 북부 공격을 시작하면서, 아파트를 떠나 여러 친구 및 지인들에게 얹혀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일랏 해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쉼터에서 지내는 친구 베티*가 그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스민*은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녀는 벌써 몇 주째 쉼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녀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그녀는 학대를 받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종교적 가정에서 자라서 끝없는 규칙과 금기

사항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리* 및
타치야나와 믿음에 대해 마음 열고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저희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도브 & 올가 비카스 및

아비브 미니스트리 팀

저희 사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헌금에 대해서는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www.avivministry.com



Aviv Ministry

P.O.Box 1181 • Arad 8911002 • Israel
Tel/WhatsApp.: +972-544-997336



컴퓨터에서 진행되는 생일 축하 행사



dovbikas@gmail.com